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만을 수형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불교대학의 대행스님께 어우어 응대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양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양불교 선원 ●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77호  
서기 2002년 7월 10일 수요일 17

법공양 페이지

## '주인공' 찾는 게 아니라 발현하는 것

근본을 의심없이 사랑하려면...

**문** 스님, 저는 주인공만 찾으면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근본과 상봉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는데 이렇게 골이 아파와서 공부를 해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의 근본이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간혹 의심이 되는데, 저의 근본을 의심없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할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주인공은 찾는 게 아니라 있는 그 자체를 발현하는 겁니다. 찾기는 뭘 찾습니까? 그리고 누가 머리가 아프게 하겠습니까? 욕심부리고 빨리 하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마음을 편안히 두고 항상 순리적으로 흘러 돌게 해야 합니다.

상을 찌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주인공 당신이 모든 것을 하고 돌아가지 않느냐. 몸을 이렇게 움직여주게 하는 것도 당신이 아니냐?' 하고 그 자리를 믿고 안에서 일어나는 밖에서 들어온 일체를 맡기면서 관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근본과 상봉을 하는 날이 있을 텐데 왜 머리가 아프도록 애통을 씹습니까? 신경을 써 가면서 골치가 아프게 하지 마세요. 사랑을 하려면 진짜 무심의 사랑을 하세요.

주인공의 사랑은 진정 끊임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우니 내 몸이 조금만 아파해도 큰 내 손을 빌려서 요기도 만져 주고 저기도 뒤아주고, 일 분 일 초도 떼어놓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남입니다.

주인공의 그 질은 사랑은 수 만금을 주고 바꾸자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을 다 주고, 아니, 세계적인 대통령을 하라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말로 행용할 수 없는 보배입니다. 다양하게 쓸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정말이지 그것은 말로는 할 수 없는 자비인 것입니다.

나는 어떤 때 혼자 삼국이 웃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나투면서 바뀌면서 화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추운데 너 지금 어딜 가?' 그러면 '그래, 내가 추우면 너도 춥고, 내가 추우면 나도 춥고, 내가 따뜻하면 내가 따뜻하고 내가 따뜻하면 내가 따뜻할데 뭘 그래.' 이라고 그냥 방긋이 웃으면서 할 수도 있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요. 말할 것이 없는 반면에 바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그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추운 겨울날에 가랑잎들을 다 구겨 넣으면 그 풀잎에서 화기가 나와서 되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두 무리 굶어 다 넣을 수 있게 네 손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것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손 좀 빌려 줘.' 하면서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남뚝을 못하고 다 쓸어모았어요. 쓸어모아 가지고 다 넣고는 '추운데 들어가야지.' 그러고 내 몸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때에 아하, 이 원리가 바로 심대 제자는 나를, 몸을 위해서 이렇게 신장이 돼 주고 받은 내 몸의 발이요, 손은 입의 손이요, 눈도 입의 눈이요, 코도 입의 코요, 모두가 입이시구나.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구나. 단지 입만이, 사랑할 수 있는 입만이, 이러면서 거기에서 아주 많은 것을 송두리째 느끼고서 송두리째 내내지게끔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숨쉬고 움직여주고 지금 이렇게 일거수일투족 운동을 해가면서 살아 나가는 한걸음 한걸음이 바로 주인공의 묘용이고 깨우치게 하려는 주인공의 참자비, 참 사랑임을 진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무와 뿌리가 뿔레야 뿔 수

없듯이, 주인공과 내가 본래 둘이 아니라 말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친구이기 때문

에.

마음의 연꽃을 피우려면...

**문**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고, 선가(禪家)에서는 염화시중(華華示衆)의 미소요, 이심전심의 묘법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부처님 재세시에 어느 날 영산회상에서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대중에게 보였는데 제자 중에 가섭존자만이 그 뜻을 알고 홀로 미소를 지었다고 하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달음의 상징인 연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저희처럼 세간에서 신명생활을 하는 범부들이 어떻게 수행해야 마음의 연꽃을 피울 수 있는지 가르침 바랍니다.

**답** 어떠한 사람이 몸 속에 들어가서 나를 찾는다 말을 하거든요. 몸 속에 들어가서 나를 찾지 않고 타의에서 나

분한테 어떠한 게 앞에 딱치든 안에서 일어나든, 모든 것을 나오는 자리이다가 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고등동물이란 모든 것이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누적돼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차례 차례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의식차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이 사실은 입력되어 있는 생명의 의식들이 하는 농간이라는 겁니다. 의식들이 모두 입력이 돼서 차례 차례로 나오는데 그 헤아릴 수도 없이 나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팔자 운명이나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나오는 대로 그 속에 다시 보라, 다시 놓으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고 현실에 입력하는 것만이 다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해드렸지만 들

음이 체가 없는데 물을 건뎌지가 있어야 문죠. 마음은 체가 없어서 물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생각의 관습과 집착, 욕심과 애정, 모든 그 원한들이 쌓여서 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꽃이 즉, 출연히 피는 연꽃이 바로 마음의 연꽃입니다. 마음의 연꽃이 피면 그것을 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연꽃을 참나라고 이름해서 붙이는 거죠.

자녀 결혼시켜야 하는데...

**문**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사위를 보든 며느리를 보든 통상 어느 집안에는 며느리를 잘못 들어서 집안이 융성하느니 그렇지 않으면 망하느니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사람마다 인연 지어진 업이 다 틀리다고 봅니다. 좋게 입력을 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나쁜 업을 지은 신부나 사위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일이 좋게 인연 지어진 사람과 나쁘게 지어진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이 저희들 눈으로는 도저히 가늠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을지 가르침 바랍니다.

**답** 나는 여러분에게 이걸 악이다 이걸 선이다, 이걸 잘못됐다 이걸 잘됐다, 또는 더 좋다 더 나쁘다를 따져서 고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 하나 있다면 악과 선을 한마음 주장자이다 보라 이겁니다. 나만이 다 이끌어 줄 수가 있다. 그 사람도 한마음이 돼서 좋게, 어떠한 애교가 생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다복하고 화목하게 살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또 형제들간에 우애 있게끔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딱 믿고 거기가 맡겨놓고, 아들이 좋다고 하거나 딸이 좋다고 하거나 그런다면 그게 그냥 곱할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법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렇게 권리가 있고 모든 걸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내 안에 있는데도, 모두에게 능력이 다 있는데도, 모두에게 자유가 있는데도 못한다면 아니 되죠. 공해서 참나찰나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떼어놓는데 어떤 발자국을 떼어냈을 때에 내가 떼어냈다고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공해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가운데 참자비가 과거의 업을 멸하게도 하고 입력이 된 걸 지워지게도 하고 이러한 거죠.

얼마나 살기가 편리할까.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이 정말이지 심성천체물리 소를 파 버리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많았지 않습니까? 남의 산소를 파 버리고 자기네 조상 갖다 묻기 일쑤고 말입니다. 지금도 좋은 자리 찾느라고 애쓰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내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간편하게 불편치 않게, 물 흘러가듯이 순수하게, 순리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어찌든 금은보배를 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죽고 사는 것이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옮겨갈 뿐이지 죽고 사는 게 없습니다.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인체는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자기를 만들어 놓는 순간 벌써 이 모습으로도 전달을 했고 마음으로도 전달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죽고 사는 게 따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쁜 자리가 있고 좋은 자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나쁜 자리다 좋은 자리다 할 게 없이 자기가 좋다 하면 그 자리가 그냥 좋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어디든지 '이 자리가' 한다면 이 자리가 될 것이고 '저 자리다' 하면 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쓸모 있게 생각하면 쓸모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나 여러분이 이 도리를 실천 안 해 보고 이것이 아니다, 저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믿음을 들었으면 실천으로 옮겨 볼 수 있고, 지켜 볼 수 있고, 인내가 있고 패기가 있고, 믿

좌우하는 것으로서 풍수지리는 수 천년 전부터 동양에서는 학문적인 체계가 서 있습니다. 저희 집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째인데, 집안에 많이 아픈 분도 계시고 재정적으로나 건강문제로 어려움이 많습다. 할아버지 묘를 보면 풍수지리적으로 역시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도 재물 두 번 옮겼고 합동천도제도 두세 번 옮겼지만 정성이 부족해서인지 큰 효험은 없는 듯 하군요.

왜 물질의 잔존물일 뿐인 조상님 뼈를 묻은 곳의 풍수지리에 따라서 이렇듯 자손의 길흉미가 좌우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음도리만으로 안 되는 것이지요? 천도의 여부와도 관계없이 또한 풍수지리 효과는 계속 장구한 기간 동안 작용하는 것 인지요?

**답** 옛날부터 산소를 잘 쓰면 천석군을 내고 산소를 못 쓰면 대대로 가난하다 하는 말이 있죠? 또 산소를 잘 쓰면 후손들이 잘 되고, 조상이 잘 돌봐 줘서 정승 판서가 되느니, 임금이 되느니 이런 말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 우리 마음공부하는 사람들은 일체 만법의 근원으로 인해서, 전체가 그 하나의 근원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것을 안다면 뭘 때문에 그것을 나쁘다 좋다 고달리겠습니까. 내 마음으로 이 자리가 좋다 하고 심봉을 쫓으면 그냥 좋은 거지 무엇을 짚어지고 돌아다니며 찾습니까. 좋은 자리를, 전체의 보배자리 한 자리인데 자리를 어디 가서 따로 찾겠습니까. 알고보면 그것은 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패가망신을 한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남이 산소를 쓴 곳이 좋은 자리라고 해서 남의 산소를 파 버리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많았지 않습니까? 남의 산소를 파 버리고 자기네 조상 갖다 묻기 일쑤고 말입니다. 지금도 좋은 자리 찾느라고 애쓰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내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간편하게 불편치 않게, 물 흘러가듯이 순수하게, 순리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어찌든 금은보배를 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죽고 사는 것이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옮겨갈 뿐이지 죽고 사는 게 없습니다.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인체는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자기를 만들어 놓는 순간 벌써 이 모습으로도 전달을 했고 마음으로도 전달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죽고 사는 게 따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쁜 자리가 있고 좋은 자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나쁜 자리다 좋은 자리다 할 게 없이 자기가 좋다 하면 그 자리가 그냥 좋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어디든지 '이 자리가' 한다면 이 자리가 될 것이고 '저 자리다' 하면 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쓸모 있게 생각하면 쓸모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나 여러분이 이 도리를 실천 안 해 보고 이것이 아니다, 저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믿음을 들었으면 실천으로 옮겨 볼 수 있고, 지켜 볼 수 있고, 인내가 있고 패기가 있고, 믿

음이 있고 믿고 나가는 힘이 그만큼 있어야만이 우리 살아나가는 데에 모든 역할을 지혜롭게 해 나갈 수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감응이 되고 거기에서 절대라는 게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직장상사와 성격 안맞아

**문** 지금 제가 일하는 곳에서 저에게 일을 시키는 분과 저의 성격이 너무나 맞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무조건 그분 말씀을 따르려 했는데 이제는 점점 더 시비를 가리게 됩니다. 나를 공부시키는 것이라든가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도 내어보지만 가슴 한편에는 웅어리가 지는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제가 오히려 일을 짓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제가 얼른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 올립니다.

**답**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든 그 자체가 공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이 모든 게 주인공이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주인공에 의해서 움직여가지만 하는구나.' 하는 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 당신이 하는 거니까 당신만이 직장상사와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당신만이 한마음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주인공에 맡기고 진짜로 믿고 나가다 보면, 그런 것도 한번 실험해 보고 체험해 보는 것이라든가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연구의 지름길일 뿔 수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데서부터, 대 생활에서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승이다 소승이다 하기 이전에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진화가 돼서 형성되면서 이렇게 수 억겁을 돌아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부모 내 자식 아님이 없다고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 했죠? 그래, 아무리 믿고 싫다 하더라도 내 아플같이 생각하고 내 괴로움 같이 생각하고, 내 고통 같이 생각한다면 항상 부드러운 말이 나가게 되고 항상 부드러운 행동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를 따로 본다면 말도 거칠고 부드럽지 않습니다. 남도 그렇지만 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마음이 맞지 않고 불협화음이 된다면 회사에도 이익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상사다 직원이다 하는 가설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과 마음이 가설이 돼있으니 내 버릇을 누를 때에, '저기도 불이 들어오게 해, 같이 불이 들어오게끔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버릇을 누를 때에 거기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보이는 데서는 보이는 그대로 들어오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버튼 누르는 거는 보이지 않는 데서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우지 말고, 화목하고 좀더 다복하게 지내게 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하고 거기가 자꾸 말기세요. 그리고 차차 지켜봐요. 그러면 나도 상대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로 물러서지 않고 믿는다면 아니 되는 게 없는데 진짜로 믿지를 않기 때문에 항상 괴롭고 딱딱은 상황에 고달리게 되는 거예요. 뭐가 뜻대로 잘 안되면 '아이구! 아무것도 아니네. 주인공이 뭐 말라빠진 주인공이야.' 이러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이끌어 가는 주인공이 지 떠넘기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공했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몸과 정신과 둘이 아니게끔 돼 있는 자체가 자기인데, 자기를 무시하는 게 뭘 버려요.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그냥 죽어나 사나 자기가 자기 뿌리를 믿어야 해요. 더불어 같이 사는 자기이니가 말이예요.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모든 건 그 자리에 놓고, 가정을 마친 거고 내 부모가 편찮든지 내가 아프든지, 내가 회사 상사한테 구속을 받든지 또 아래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위치든지 간에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놓고 상이 없이 하다면 아래 사람들은 잘 이끌어가고, 또 위 사람들은 잘 모시게 되는 겁니다. 질서를 지키면서도 지킴이 없고 지킴



그림 · 최주현

를 찾는다면 영원히 찾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몸 속에 들어가서 찾을 때에 어떻게 찾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 속을 세계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산도 있고 물도 있고, 흙탕도 있고 진흙 발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뭐 온통 나리일 겁니다. 그런데 나를 찾으러 거기 들어갔을 때에 소임을 맡은 구비구비, 그 개체 하나의 소임자들을 다 만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자갈밭을 걷고 가시밭을 걷고, 흙탕물에 빠져가면서 걷는다면 그것을 '고'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한마음의 생활은 '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에서 구비구비 넘어가면서 딱쳐오는 모든 걸 거기 놓고 가라 이었습니다. 우리 생활하는 그 자체가 구비구비 딱쳐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인간은 고등동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상세계를 찾아서 향해 가는 길이요. 상세계 중세계 하세계가 있는 반면에 사람들도 중세계에서 살면서 상세계로 치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세계에서 맴도는 사람, 하세계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

기는 들으나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으니 까 대치가 되지 않는 경향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기 못 믿는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이 세상이 믿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먼저 알아야 부처의 마음도 알고, 부처님이 공체로서 천백억, 화신으로 나투는 도리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겪어 물어 물어, 자갈밭을 걷고 가시밭을 걷고, 흙탕물에 빠져가면서 걷는다면 그것을 '고'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한마음의 생활은 '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에서 구비구비 넘어가면서 딱쳐오는 모든 걸 거기 놓고 가라 이었습니다. 우리 생활하는 그 자체가 구비구비 딱쳐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인간은 고등동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상세계를 찾아서 향해 가는 길이요. 상세계 중세계 하세계가 있는 반면에 사람들도 중세계에서 살면서 상세계로 치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세계에서 맴도는 사람, 하세계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

나무와 뿌리 뿔 수 없듯이  
나-주인공은 둘이 아니요  
자기 영원한 친구이기에  
주인공의 참사랑·참자비  
진실되게 믿을 수 있어야

## 나 먼저 알아야 부처 마음 깨닫고 공체로 나투시는 도리도 알게 돼

아 할 문제가 지금 우리 생활에서 겪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것을 들로 보지 말고 맡겨서, 놓고 또 놓아 간다면 출연히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나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성의 고난을 다 겪고 나면 연꽃이 피듯이, 출연히 진흙 땅에서 연꽃이 핀다고 했습니다. 누구냐고 보고, 누구냐고 말하고, 누구냐고 행할 수 있지만, 내 몸 속이라는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은 더러운 물이 묻지 않는 겁니다. 마

학이기도 하고, 과학이기도 하고, 생활 자체가 도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 참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성으로 보지 말고 우선 나부터 관하는 도리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히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됨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풍수지리와 천도

**문** 조상님이 돌아가시고 묘지에 모신 후 그 묘지의 풍수적인 길흉에 따라 자손이 잘되고 못되는 것을 상당히